

■ 2026 새해설계 명현관 해남군수

# “인공지능·에너지 수도, 대한민국 중심에 서겠다”

AI컴퓨팅센터·해상풍력 전용항만·RE100산단 등 추진  
전담부서 신설 미래사업 추진…에너지 소득 시대 준비

해남군이 미래농어업과 AI·에너지·첨단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도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을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명현관 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해남은 이제 땅끝이 아닌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 심장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며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농어업 기반 위에 AI와 에너지가 결합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을 현실로 만드는 역사적인 한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해남이 맡은 국가적 사명을 다하고, 그 성과와 경제적 혜택을 모든 군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해남군에서는 삼성 SDS 컨소시엄의 국가AI컴퓨팅센터와 LS그룹에서 투자하는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 오픈AI·SK그룹의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조성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 군수는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정부의 AI·에너지 대전환 구상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 해남이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AI·에너지와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에너지 수도 조성의 혜택을 해남군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8년 국가AI컴퓨팅센터 가동에 맞춰 해남읍에서 마산~산이간 4차선 1단계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2단계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해남읍에서 솔라시도까지 이동시간이 18분,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12분대로 단축된다.

해남읍권의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의 개선도 동시에 진행해 해남에서 살고, 해남에서 일하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해남의 풍부한 에너지를 주민 수익으로 되돌리는 에너지 이익공유제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산이·마산 햇빛공유집적화단지과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의 민관협의회가 출범해 주민참여형 에너지이익공유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주식회사 설립과 펀드 조성에 착

수한다.

내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에너지 주식회사는 군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로,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와 기업의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중심의 RE100국가산단을 집적화해 세계적인 AI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나아가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연계해 AI와 재생에너지, 첨단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도시, 해남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올해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착공할 계획으로, 해남군은 두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의 거점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남군 농업연구단지에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비롯해 전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농가의 임대

형 스마트팜과 기업의 R&D시설들을 유치해 연구와 실증, 기술보급,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전국 최고의 미래농업 플랫폼을 조성한다.

또 발행 7년만에 8200억원 판매를 돌파하며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을 필두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읍·면 단위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한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는 도전과 도약, 활력의 상징인 붉은 말의 해로, 대도약을 예고하고 있는 해남군의 기상과도 꼭 닮아 있다”며 “미래농어업과 AI·에너지·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이 반드시 실현되고, 군민 전체의 혜택으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영암, 지방세 징수 1000억 시대 열었다

지난해 1058억 기록…기업 맞춤형 지원 군세 상승

영암군은 지난해 지방세 1058억원을 거둬들이며 군 역사상 최초 1000억 지방세 징수 시대를 열었다.

이는 전년 대비 6.83% 증가한 금액으로 도세 299억원, 군세 758억원으로 구성됐다. 최근 10년 이내 가장 세수가 적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378억원 35.71%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지방세 1000억원 돌파를 이끈 주역인 군세 증가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견인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도세인 취득세가 소폭 줄어든 상황에서 이윤 성과에서 더 주목된다.

영암군은 자주 재정 역량의 도약을 알리는 이번 성과의 요인을 치밀한 세원 관리, 고질 체납 정리,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선업 중심의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해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규제자유특구 실증, 근로자 복

지·정착금·복지센터 운영 등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법인 영업이익 증대, 신규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영암군의 정책이 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징수액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기·특별 세무조사, 과점주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으로 20억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이월체납 정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21억원을 환수하는 등 이월체납액 징수율 48.2% 달성 성과도 올렸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무안군은 최근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첫 정례초회를 열고, ‘대전환 무안시대’의 개막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 무안, 병오년 새해 ‘대전환 무안시대’ 시동

‘군민중심행정·미래전략’ 올해 첫 정례초회 개최

무안군이 2026년을 지역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중심행정을 핵심축으로 한 미래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첫 정례초회를 열고, ‘대전환 무안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김산 군수는 “2026년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무안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의 해다”고 강조했다.

또 군정 목표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후속 협의를 논의하고, RE100 기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 생산시설 확충으로 무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 AI 기반 첨단 농산업 거점 육성, 인구 20만 도농복합 자립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산업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후위기와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현, 문화·관광자원의 융합적 발전을 통한 세계 속 무안 실현, 혁신을 통한 농축어업 경쟁력 강화, 사람 중심의 포용 복지와 교육 실현으로 신뢰받는 혁신행정 구현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